

중국 연변지역 청자대우법 체계에 대한 초보적 고찰

채 춘 옥

Abstract

Chae Choon-ok. 2012. 2. 28. **An Elementary Consideration of hearer Honorific System in Chosun Language, Yanbian Area, China.** *Bilingualism* 48, 419-453.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hearer honorific system in Chosun language, Yanbin Area, China, according to analysis of drama scripts showing colloquial styles in Yanbin Area. According to hearer honorific system, appellation words or pronouns suitable for treatment should be selected, in view of a speaker's intention to honorifics toward a hearer, and then a sentence terminating ending should be selected. In Korea, a great number of researches on the hearer honorific system have been conducted, which shows complicated aspects, ranging from selection of terms to expression elements, and from the standard language to dialects, as well as those on hearer honorifics in literature work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not many systematical discussions on honorifics in Chosun language, Yanbin Area, China. Most of them, what is worse, have merely described surface phenomenon, and researches on comparison between those of Korean and Chosun language have been not yet conducted well. Accordingly,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patterns of hearer honorifics in contexts of dialogues more specifically, based on drama scripts of Yanbin Area, according to various theories of honorifics in Korean languag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hearer honorific system in Chosun language, Yanbin Area, China, by searching regularities from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selection of honorific levels of Korean and Chosun speakers. (**Kookmin University**)

【Key words】 hearer honorific system, Honorific level, Social distance, Speaker, Hearer, Comparison

1. 머리말

한국어의 예절이 문법범주로 정착된 것이 한국어의 대우법이다. 대우법이란 화자가 청자나 화제의 인물에 대하여 상하 관계, 친소 관계 등을 바탕으로 상황에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것이다(성기철, 1985:14).

한국어의 대우법은 타인에 대한 대우법과 화자 자신에 대한 대우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청자대우법, 주체대우법, 객체대우법으로 나누고 후자는 화자대우법으로 나눈다. 이러한 대우법 중에서 청자대우법이 가장 정밀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대우할 대상 가운데 청자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김태엽, 2007:23).

주체 대우와 객체 대우는 존대 현상에 초점을 둔 것인바 존대와 비존대로 구분된다. 하지만 청자 대우는 청자에게 향하는 화자의 존대 의도에 따라 대우에 알맞은 호칭어나 대명사가 선택되어야 하고 다시 이에 따라 대우에 알맞은 종결어미가 선택되어야 한다. 호칭어나 대명사, 종결어미 등은 모두 선택의 폭이 넓고 그 각각이 대우 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적절히 선택해서 호응시키는 일은 여간 복잡 다양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토록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청자대우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용어¹⁾선택으로부터 표현요소에 이르기까지, 표준어로부터 방언에 이르기까지, 문학작품 속에서의 청자대우법에 대한 연구 등등에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청자대우법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었고 그 이론도 매우 발달해 있음을 말해 준다. 반면에 중국 연변지역 조선어²⁾의 대우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많지 않았고 그 또한 표

1) 높이는 면만 나타내는 명칭: 경어법, 공대법, 존대법, 높임법, 존경법.
 높임과 낮춤의 면 둘 모두를 나타내는 명칭: 존비법, 더 낮춤법과 더 높임법.
 높임, 낮춤의 면을 표현에 나타내지 않는 명칭: 대우법, 말 대접법, 말 대우.
 본고에서는 국어의 전반적인 대우 현상을 포용하는 명칭으로 현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우법’을 선택함.

면 현상의 기술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다룬 논문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대우법 이론을 바탕으로 연변지역의 드라마극본을 중심으로 대화 맥락에서 청자대우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조선어 화자가 청자대우법 등급을 선택하는데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어 조선어 청자대우법 체계를 밝혀내는 데 목적을 둔다. 드라마극본은 연변지역 극작가 리광수의 『연변아가씨』, 『사랑의 꽃』³⁾을 선택하였다. 개혁개방 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연변지역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극작가가 바로 리광수⁴⁾이다. 리광수는 황봉룡과 최정연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대표적 극작가로 연변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연변지역 조선족 연극의 미래 모습과 그 방향을 알게 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는 사실로 많은 문학 연구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대표적인 연변지역 극작가의 문학작품 속의 언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변지역의 구어체를 잘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극본을 분석하여 연변지역 조선어의 청자대우법의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고에서는 연변지역의 조선어를 간략하게 조선어로 표현함.

3) 『연변아가씨』(2006)(연변아가씨, 사랑의 샘), 『사랑의 꽃』(2006)(사랑의 꽃, 하얀 꽃, 도시농민)

4) 리광수는 1949년생이며 연변문련 부주석, 연변희곡가협회 주석이다. 1977년부터 『장백폭포』, 『해란강』 등 잡지를 편집했으며, 1982년부터 연변문예창작평론실에서 전업작가로 근무했다. 1983년 첫 장막극 『유령 시찰기』를 발표했으며, 『사랑의 품』에 실린 작품 외에 『림+해=?』(1983), 『순실이』(1985), 『가난과 사랑』(1989), 『싸움 속의 사랑』(1989) 등이 있다.

2. 청자대우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

한국과 중국 연변지역에서의 청자대우법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국에서 청자대우법의 체계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청자대우법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청자대우법의 체계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것이냐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자대우법의 등분 체계를 설정할 때 논점이 되는 것은 각 등급 사이의 관계 설정인데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높임 등급과 낮춤 등급의 양분적인 대립 체계로 기술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문체적인 차이에 따라 이원적인 체계로 기술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안높임 등급을 기준으로 높임 등급이 대립하는 체계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높임 등급과 낮춤 등급의 양분적인 대립체계

최현배(1937/1961:262)	김민수(1964)	강운호(1968)
아주 높임(합쇼)	극존칭:하나이다	극존대체:하소서
예사 높임(하오)	보통존칭:합니다	보통존대체:합쇼
예사 낮춤(하계)	존경:하오	보통비대체:하계
아주 낮춤(해라)	하대:하계	극비대체:해라
	보통하대:해	
	극하대:해라	

<표 1>의 논의는 종결어미가 [높임] 자질이 있고 없음에 높임과 낮춤이라는 극성 대립어로 분류하여 중간영역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실 언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것은 극성 대립어에 속하는 형용사 ‘높다/낮다’의 대립적 의미에도 맞지 않다.

둘째 부류에 속하는 청자대우법의 등분을 이원적 체계로 설정하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존대와 비존대가 세분화된 격식체와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이 쓰이는 비격식체로 나눈다(서정수, 1997:39). 이는 격식성 여부에 따라 각 등급을 나누는 것인데 종결어미로 청자대우법의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격식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높임과 낮춤이 세분화된 1차 화계(話階)와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이 쓰이는 2차 화계로 나누는 것이다(성기철, 1985).

<표 2>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이원적인 체계

서정수		1격식체		2비격식체	
존대	높임	아주높임	하십쇼체	두루높임	해요체
		예사높임			
비존대	낮춤	예사낮춤	해라체	두루낮춤	해체
		아주낮춤			
		상층	하층	상층	하층
		1차 화계(성기철)		2차 화계(성기철)	

상층 체계에는 하계체와 하오체가 존재하는 중년층 이상의 화계와 그렇지 않은 중년층 이하의 화계가 다르다고 보아 이를 상층 화계와 하층 화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손윗사람에게 쓰인다는 근거로 ‘높임’이고 손아랫사람에게 쓰인다는 근거로 ‘낮춤’이라고 구분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손아랫사람이라 해도 낮선 사이에서 충분히 높여 주거나 안 높여 주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견해는 등급을 구분할 때 ‘격식성’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원적 체계에서 ‘높임’과 ‘낮춤’의 양극 대립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체계는 대동소이하다.

이원적인 체계로 세운 논의에서는 ‘-어/-지’와 같은 종결어미를 비격식체라 하고 ‘-다/-느냐’와 같은 종결어미를 격식체라 하여 청자대우법의 체계를 두 가닥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어/-지/-

다/-느냐' 등의 종결어미가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인 장면에서 이른바 격식체가 사용되고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비격식체가 사용된다는 설명은 현실 언어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한길(2002)과 남기심·고영근(1995)에서 격식체의 종결어미와 비격식체의 종결어미가 동일한 장면에서 동일한 청자에게 동일한 화자가 발화한 담화에서 함께 선택된다는 것은 격식체, 비격식체의 종결어미의 용법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청자대우법의 체계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별하여 이원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한국어의 현실에 제대로 부합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방법이다.

셋째 부류에 속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표 3> 안 높임 등급을 기준으로 높임 등급이 대립하는 체계

a박창해 (1964,1990)	b허용(1969)	c김종택 (1981)	d김태엽(1999)
정식용어:-습니다 정식용어의 반말: -우/-오/-아요 중간용어:-어 평교용어:-다 평교용어의 반말: -아	갑니다 가오/-가(아) 가네/-가(아) 간다	1)존대: 수상존대 수하존대 2)평대	1)높임[+높임]: 아주 높임:-습니다 조금 더 높임:-으오 조금 높임:-네 2)안 높임[0높임]: 안 높임:-다/나 다

<표 3>에서 보다시피 모두 낮춤 등급을 청자대우법 체계에 설정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박창해(1964, 1990)에서는 ‘-다’를 평교용어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자가 손자이든 제자이든 나이가 화자보다 아주 적은 사람이든 안 높임(평대)의 등급을 실현하는 것이 종결어미 ‘-다’임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타견이라고 할 수 있다. c의 평대와 d의 안 높임을 실현하는 종결어미가 곧 평교용어라고 할 수 있다. 김영희(1996:178)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내에서 종결어미를 ‘높임’과 ‘안 높임’의 양분 대립으로

보는 것이 특이하다. 이 논의에서는 서정목(1988, 1990), 서태룡(1992)의 설명을 인용하여 각 등분을 표시하는 종결어미에 형태적 분석을 하면서 ‘하옵니다, 합니다, 하오, 하네’는 청자 높임의 형태소로 구성되었고 ‘하다’의 종결어미에는 이러한 형태소가 없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 비격식체의 경우 ‘부드럽게 함’이라는 화용적 기능의 조사 ‘-요’로 구성된 해요체는 유효적이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해체는 무표적이라 하면서 ‘높임’, ‘낮춤’의 양극 체계로 파악하는 것은 문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높임’, ‘안 높임’의 등급을 주장한다.

요컨대 첫째 부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낮춤 등급을 설정한 문제점, 둘째 부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낮춤 등급의 설정과 현실 언어에 부합하지 않는 격식, 비격식으로 구분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부류에 속하는 체계는 낮춤 등급을 설정하지 않는 점에서 서로의 견해가 일치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실 언어에 가장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청자대우법의 체계는 셋째 부류에 속하는 체계라고 본다.

2.2. 연변지역의 대우법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연변지역 조선어의 대우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90년대부터 이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청자대우법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김상원(1996:44-62)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중국에서 쓰이는 조선말 계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에서 중국의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지역 조선족들의 종결어미 사용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는 김덕모(1996:280-300)의 “조선말 계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동북 3성 6개 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

로 언어조사를 진행하여 종결어미의 사용빈도에 대하여 다루었다. 대우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리세룡(1996:208-225)의 “우리말 존대법에 대한 고찰”일 것이다. 그는 존대법에는 말할이, 들을이, 주체, 객체 등이 서로 같지 않은 자격으로 문장에 나타나는데 이들의 상호관계는 나이, 사회적 지위,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 사회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알맞은 존대법이 쓰이기 마련이지만 화자의 심리적 태도 때문에 여러 인물 사이의 존비 관계는 극히 복잡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연변지역의 청자대우법에 대한 연구는 박경래(2003:47-62)의 “중국 연변 정암촌 방언의 상대경어법”에서 볼 수 있는데 상대경어법에 대한 체계를 기본적으로 아주 높임에 ‘예예체’, 예사 높임에 ‘야야체’, 낮춤말에 ‘응응체’로 불리는 3등급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예예체인 ‘-읍소’를 야야체로 보는 점, ‘기옥이 엄마요, 아침 잡셨소?’에서 ‘-요’를 예예체로 보고 예예체와 야야체에 넘나들며 사용한다고 주장한 점, ‘(으)므우/둥’이 ‘-어요’보다 청자를 좀더 예우해주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등급에서 쓰이는 ‘-수꾸마/수꼬마’는 예예체나 응응체에 두루 쓰인다고 한 점은 화자와 청자의 발화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종결어미 형식이나 화자와 청자의 순위, 손아래의 절대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상당히 모순되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각각의 등급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들이 매우 다양하고 쓰임 또한 미묘하므로 이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명옥 외(2002)에서는 연변지역의 청자대우법의 등급을 존대, 평대, 하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채옥자(2002), 김서형(2003), 엄춘영(2006), 정향란(2010)에서도 모두 위에서의 3등분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연변지역 조선어 대우법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산발적이고 여전히 현상에 대한 설명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화자와 청자와의 사회언어학적인 고찰을 기

초로 하는 본질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조선어의 각 종결어미의 쓰임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자대우법 사용의 원리와 대우 등급을 정밀하게 기술하는데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연변지역의 드라마극본을 중심으로 한국어⁵⁾와 연변지역의 조선어의 청자대우법에 관하여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조선어의 청자대우법체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3. 화자-청자 관계와 청자대우법 등급의 선택 양상

2장에서 보다시피 조선어와 한국어는 청자대우법 등급체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3장에서는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화자-청자 관계에서 사용된 청자대우법 등급인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등 6개 유형에 따라 하나의 등급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 조선어와 한국어 등급체계 비교와 아울러 조선어 청자대우법에서 사용되는 종결어미를 제시한다⁶⁾.

<표 4> 조선어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등급체계 비교

조선어	존대	평대	하대
	예예체	야야체	응응체
평서형	-읍구마/습구마 -읍니다/습니다 -읍더구마/습더구마 -읍데다/습데다	<-우/소> -읍데/습데	<-다/는다/나 다 -더라>
의문형	-읍두(까)/습두(까) -읍딴두/습딴두 -읍다/습다	<-우/소> -읍데/습데 -으라우/라우	-데/-야 -아래/-어래 -으까
청유형	-깁소/기시오/기쇼	-기우/기요 -으웨/스웨	-자

5) 이서란(2001)의 ‘현대 상대경어법 등급 체계 연구: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와 비교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6)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연변지역 조선어 종결어미 제시하였음.(<공통 쓰임)

명령형	-읍소/-으소	<-우/소>			-아(어)라/라 -나라 -아(어)래라
한국어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

청자대우법의 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공적 요인, 사적 요인, 상황 요인으로 나눈다. 공적 요인으로 하나는 화자와 청자의 개별적 특성에 의한 연령층, 성별, 사회적 신분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와 청자의 공적 관계에 의한 연령의 순위나 손아래 혹은 동년배 관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등 사회적 관계를 들 수 있다. 사적 요인으로는 하나는 화자와 청자의 개별적 특성에 의한 성격, 평소의 말투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와 청자의 사적 관계에 의한 친구나 동창 등 친밀한 사이, 화자와 청자의 감정 상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인으로 연설, 사회, 수업, 설교, 방송, 신문, 보고문을 들 수 있다(서상준, 1996:22)

본고에서는 사회적 관계목록을 우선 사회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집단을 이루지 못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구분하였고 전자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후자는 {개인-개인} 나누어 살펴본다⁷⁾. 이 세 가지 유형에서 {1차 집단}은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유형이고⁸⁾ 공적 요인 보다는 사적 요인이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위계서열이 분명하고 서열에 따른 행동이 규범적으로 요청되는 {2차 집단}내에서 서열이 낮은 화자와 높은 화자와의 발화 경우인데 사적 요인과 공적 요인이 골고루 작용하며, 마지막 유형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만날 뿐 개인적인 관계는 맺

7) Cooley(1969)에서는 정서적인 유대로 묶여진 사람들의 연합을 1차 집단이라고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그 관계는 주로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들의 연합을 2차 집단이라고 하였다. 전자는 의사소통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과 놀이 집단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관계가 의식적이고 목적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정서적 유대는 중시되지 않고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이러한 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8) 가족 관계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매우 친밀하여 화자와 청자의 상대적 지위가 연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관계도 1차 집단에 속한다.

지 않는 {개인-개인}유형인데 공적 요인이 중심이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등급 선택 양상에 속하는 모든 화자-청자 관계를 제시하고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귀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3.1. 청자대우법의 한 등급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3.1.1. 합쇼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합쇼체는 청자를 가장 높이 대우하는 형식인데 청자대우의 절대값이 가장 높다. 한국어 종결어미 형식에는 ‘-습니다/-습니까/-으십시오/-으시지요’ 등이 있다.

한국어 자료에서 합쇼체만 사용된 대화횟수가 적은데 비하여(이서란, 2000:9) 본고에서 관찰하는 자료에서는 합쇼체만 사용된 대화가 많이 발견된다. 연변지역의 조선어에는 한국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1차 집단}의 예가 많이 발견된다.

(1) {1차 집단}

<연인사이(여⇒남)>

ㄱ. 홍화-정수: 먼저 좀 앞기시오.

ㄴ. 미련-용호: 그럼 서투른 대로 부릅니다. 예.

<자녀-부모>

ㄷ. 영애-김씨: 어머니 오늘은 절대 먼데 나가지 마시오. 네?

ㄹ. 선녀-백화: 그렇게 합시다. 네?

<아내-남편>

ㅁ. 백화-상록: 할 수 있으니깐 물어보는 게 아납니까?

<친인척 사이>

ㅂ. 춘나-배영감(할아버지): 외할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1)에서는 개인적인 정서적 관계에 있는 <연인(여⇒남)> 사이, <자녀 ⇒(시)부모> 사이, <아내⇒남편> 사이, <손자⇒조부> 사이에서 남녀 관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친인척 관계에서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합쇼체를 쓴다.

(1ㄱ)의 ‘-기시오’는 ‘-김시다’와 함께 어간이 일음절인 청유형에만 쓰이는데 하오체 ‘-기오’에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 청자를 존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연변지역의 독특한 언어형태이다. 그리고 (1ㄴ, ㄷ, ㄹ)에서처럼 합쇼체로 끝난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의 문말에 ‘예’를 붙여 독특한 확인동의성 부가의문문을 만드는데 주로 여성발화어에서 나타난다. 간접표현의 일종인 부가의문법은 청자에게 심적 부담이 적은 여성적 표현으로 보여 진다고 한다(김선희, 1991). 이는 청자에 대한 강요를 회피하는 방법이므로 상호 인간적인 세련된 언어 표현인데 ‘예’ 부가의문문은 연변지역 조선어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2) {2차 집단}

ㄱ 원장: 동무도 의사요? 원장과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오?

간호사: 저도 그 약속을 지켜주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2ㄱ, ㄴ)은 {2차 집단}에 속하는 직장에서의 <의사-간호사> 관계에서 서열이 낮은 간호사가 서열이 높은 의사에게 말하는 경우인데 모두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이는 언어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인-개인}

ㄱ. 할아버지: 이렇게 폐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백화(의사): 안될 게 없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전탁경로원이 다

되면 우리도 할아버지와 함께 거기 가서 살 겁니다.

ㄴ. 청년: 아버지, 일감이 없습둥?

학수: 양! 없소!/양! 가시오!

청년: 잠깐 세웁소! 저기 우리 형님네 집이 있는데 형님네도 넣
겠는가 물어보고 오겠습꾸마!

ㄷ. 학수: 그래 이 무거운 냉동기를 곰골까지 실어다 달란 말입니까?

아낙1: 네! 어찌겠습둥? 실어다줍소! 실었다가 또 부리우겠습둥?
내 운비를 푼푼히 드립지!

아낙1: 예구, 다 왔소꼬마! 바로 저 집이꼬마!

ㄹ. 아낙2: 그런데 아주머니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선생님 공산당원
입지?

(3)에서 보다시피 <의사-환자>, <직원-손님>의 공식적인 상황에서 나
타난 네 가지 문장유형에서는 사회적인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사회적 위
계와 서열과 관계없이 합쇼체를 사용한다. ‘-읍니까’와 ‘-(으)ㄹ둥’는 청
자를 높이는 표현인데 전자는 한국어 합쇼체 의문형 어미와 같고 후자는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둔 함경도 방언의 ‘예예체’ 의문형이다. ‘읍니까’
는 공식적인 자리나 특별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 또는 선생님이나
사회적으로 급이 높은 청자에게 사용된다. (3ㄴ)에서 보다시피 ‘-(으)ㄹ
둥’은 주로 사적인 자리에서 청자에게 사용되며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화자나 청자가 노인일 때 의문형 종결어미 ‘-
(으)ㄹ둥’과 그에 대응하는 평서형 종결어미 ‘-스꾸마/-스꼬마’가 잘 사용
되는데 ‘-꾸마’는 남성이, ‘-꼬마’는 여성이 주로 쓰는데 이는 밝은 양성
모음을 선호하는 여성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3ㄴ)의 ‘-읍소’는
청유형과 명령형에 두루 쓰이는데 한국어의 ‘-으십시오/-으시지요’에 해
당한다. (3ㄷ,ㄹ)에서의 ‘-읍지’는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데 한국어의 ‘-읍니다/까’에 해당

한다. 이처럼 {개인-개인} 유형에서는 낯설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합쇼체가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표 5> 합쇼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분류	집단	한국어	공통점	조선어	기준
합쇼체	1차 집단	(평) [-읍니다] (의) [-읍니까] (명) [-으시지요 ⁹⁾ (청) [-으십시오]	(평) [-읍니다] (의) [-읍니까] (명) [-으시지요] (청) [-으십시오]	(평)[-읍디다] (의)[-읍디까] (명)[-으시오] (청)[-기시오] [-읍시다] 부가의문문	[연인][부부]: 여⇒남 [연인(노인)]: 여⇔남 [자식-(시)부모]: 손아래⇒손위
	2차 집단	(평) [-읍니다] (의) [-읍니까] (명) [-으시지요 ⁹⁾ (청) [-으십시오]	(평) [-읍디다] (의) [-읍디까] (명) [-으시오] (청) [-기시오] [-읍시다]	(평)[-읍디다] (의)[-읍디까] (명)[-으시오] (청)[-기시오] [-읍시다]	[학생⇒교사] [부하⇒상사] 서열 낮음⇒ 서열 높음
	개인-개인	(평) [-읍니다] (의) [-읍니까] (명) [-으시지요 ⁹⁾ (청) [-으십시오]	(평) [-읍디다] (의) [-읍디까] (명) [-으시오] (청) [-기시오] [-읍시다]	(평)[-꼬/꾸마] [-읍지] (의)[-음둥] [-읍지] (명/청)[-음소] (명)[-으시오] 부가의문문	낯설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사이

3.1.2. 해요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해요체는 청자에 대한 높임의 절대값이 하오체와 합쇼체의 중간에 해당하는데 나이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높여 대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해요체는 반말 형식에 ‘-요’를 붙인 것으로 ‘-어요/-지요’가 대표적인데 해체와 같이 모든 종결법에 두루 쓰인다.

연변지역의 조선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요체와 하오체의 쓰임에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하오체의 쓰임이 적고 해요체의 쓰임이

9) 이정복(1998:342)에 따르면 [-으십시오]보다 [-으시지요]가 더 많이 사용된다.

많은 반면에 연변지역의 조선어에서는 해요체의 쓰임이 적고 하오체의 쓰임이 많다¹⁰⁾.

중한 수교 이후, 연변지역의 조선족 특히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과의 접촉에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부러 해요체를 쓴다. 본고에서 살핀 드라마극본에서는 이런 예들이 아주 적지만 볼 수 있었다.

(4) {1차 집단}

선녀-차사장: ㄱ. 무슨 문제던가요?

ㄴ. 아직 고려하지 못했는데요?

(5) {개인-개인}

ㄱ. 미화-창수(한국인): 그럼 나도 떠 넣어드릴까요?

ㄴ. 미화-명호(한국인): 내 인차 건너가서 치고 오지요. 네?

(5)에서 남성은 한국유학생이고 여성은 연변 조선족인데 대화에서 여성이 해요체를 쓰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자료에서 나타난 해요체는 (4/5)의 예문뿐이다.

한국에서는 {1차 집단} 내에서 해요체만 사용된 경우는 대체로 화자보다 청자의 지위가 더 높은 경우이다.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내에서 손윗사람에게도 해요체를 사용하는데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배우자), 심지어 남편의 여동생이나 여동생의 남편에게도 해요체를 두루 사용한다. 연변지역 조선족 화자들은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 내에서 손윗사람에게는 합쇼체를, 남편의 남/여동생이나 여동생의 남편에게는

10) 김덕모(1996:283)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해요체의 쓰임은 2.57%를 보인다. 연변지역의 조선족은 함경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함경도 방언이 우세를 차지하면서도 경상도 방언과 평안도 방언의 쓰임도 나타난다. 함경도 방언에는 해요체보다 하오체의 쓰임이 우세하고 평안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은 해요체의 쓰임이 빈번하다.

하오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2차 집단}내에서는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높은 경우에도 해요체만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직장 내에서 직급 차이와 관계없이 해요체만 사용하고 학생들은 교사에게 대체로 해요체만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직장 내에서도 직급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합쇼체를 많이 쓰는데 격차가 클 경우에는 하오체를(손위⇒손아래) 쓰기도 하며 학생들은 교사에게 합쇼체를 사용하여 합쇼체의 기능부담량이 크다.

한국에서는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개인-개인}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데 대체로 사업상의 만남, 가게 주인이나 점원과 고객을 포함한 타인과의 일상적 공간에서의 접촉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변지역에서는 대체로 합쇼체를 사용하는데 화자와 청자의 격차가 클 때는 하오체를 쓸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는 해요체가 손위, 손아래와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지만 연변지역에서는 화자가 나이 차이에 의한 손위, 손아래의 판단에 근거하여 합쇼체 또는 하오체로 대우한다.

<표 6> 해요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분류	집단	한국어	공통점	조선어	기 준
해요체	1차 집단	[-어요] [-지요]	-	-	[연인]:여↔남 [자식-(시)부모]:손아래⇒손위 [형제자매 배우자/배우자의 형제자매] [동서]
	2차 집단		-	-	[학생⇒교사] [직장동료↔직장동료(교사-교사)] [상사↔부하]
	개인-개인		-11)	-	사업상의 만남, 가게 주인이나 점원과 고객을 포함한 타인과의 일상적 공간에서의 접촉

11) 한국인들과의 접촉에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부러 해요체를 씀.

3.1.3. 하오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한국에서 하오체는 화자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같은 청자에게 쓰되 하계체보다 더 높여 대우하는 형식이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대우법 형식에는 종결어미 ‘-으오/-구려’가 대표적이다. ‘-으오’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형식에서 두루 사용된다(이정복, 1998:336).

(6) ㄱ. 당신은 운동을 참 잘 합디다.(한길 1991:222)

ㄴ. 그들이 나를 기다립디까?(서정수 1984:54)

ㄷ. 김선생, 빨리 잡시다.(서정수 1984:55)

(7) ㄱ. 영애-학수(남편): 옆집아주머니와 말해놓고 갔습디다.

ㄴ. 달수-허씨(유면): 홍화도 약혼한 남자를 데리고 갔습디까?

ㄷ. 홍화-허씨(엄마): 어머니, 오늘 새아버지 보러 잡시다.

ㄹ. 학수-영애(아내): 양! 심심하지는 않겠습디!

(8) ㄱ. 이씨: 괜한 소릴! 화투도 잘만 놀면 머리가 튼답니다. 애가 벌써
 꺾수를 척척 세는 것만 보시유!

ㄴ. 장꾼: 오늘 진짜 연변소가 나왔구먼! 저 꺾충 쳐든 대가리를 보
 시유!

한국에서는 (6ㄱ,ㄴ,ㄷ)의 ‘-읍디다/-읍디까/-읍시다’를 하오체에 포함시키지만 조선어에서는 (7ㄱ,ㄴ,ㄷ)을 합쇼체에, (7ㄹ)의 ‘-읍데’를 하오체에 포함시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오체는 여성 화자들(동서/언니와 동생/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우’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연변에서는 (8ㄱ,ㄴ)에서처럼 여성, 남성 화자에서 모두 잘 나타난다.

조선어에서 하오체는 주로 <남편⇒아내>, <남친⇒여친>, <자식⇒부모>, <형제/자매(연하⇒연상)>, <친밀(연하⇔연상)>, <친인척 사이(손위 ⇔손아래)> 등에서 쓰이는데 한국어에서는 해오체가 두루 쓰인다.

(9) {1차 집단}

- ㄱ. <남편⇒아내>상록-백화: 여보, 집에 술 있소?
- ㄴ. <남친⇒여친>철남-선녀: 듣기 싫소. 장난치는 거요?
- ㄷ. <자녀⇒부모>설매-이씨: 엄마 왔구만, 이리 빨리 왔소?
<형제/자매(연하⇒연상)>
- ㄹ. 미화-향옥: 오늘은 첫새벽부터 무슨 일이요?
<친밀 연하⇒연상>
- ㅁ. 영화-전호: 형님, 이제 오오?
<친인척 (손아래⇒손위)>
- ㅂ. 영애-설매(올케): 어쨌든 가서 안전에 주의하오!
<친인척 (손위⇒손아래)>
- ㅅ. 설매: 생원이! 생원이 어디 있소?

(10) {2차 집단}

- <상사⇒부하>
- ㄱ. 명희(간호사):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지켜주느라 얼마
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원장: 됐소, 됐소, 나가보오.

(11) {개인-개인}

- ㄱ. 강철(학생): 쌀 한 자루에 얼마니까?(무면)
 쌀장수: 백원이요. 이제 사다 먹어보오. 찰밥 같을 게요.
- ㄴ. 아나1: 아주머니, 저분이 요독증에 걸린 남의 학생을 기른다는
 그 선생이 아니요?(유면)

아낙2: 아주머니 올라올 때부터 어디에서 본 것 같다 했소.

(9)의 {1차 집단}의 예를 보면 한국어에서 해체와 해요체에 상응하는 예들이 조선어에서는 하오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口)에서는 친형제가 아니고 상하 격차가 작고 가까운 사이에 쓰였는데 낮선 사이에 하오체를 쓰면 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특이한 것은 출가한 딸이 엄마에게 하오체를 쓰는데 화자는 성인이라는 제약이 있는 듯하다(9ㄷ).

혼인관계를 통한 친인척 사이에서 한국어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하지만, 연변지역에서는 남편, 아내의 형제나 배우자에게도 격차가 크지 않으면 하오체를 사용하며(9日, 人),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도 하오체를 사용한다. {2차 집단}에서는 (10ㄱ)에서처럼 직위가 높은 화자가 낮은 부하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개인-개인}에서의 낮설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쇼체를 쓰지만, (11ㄱ)에서처럼 나이 격차가 많을 때에만 나이가 많은 화자가 나이가 어린 청자에게 하오체를 사용할 수 있다. (11ㄴ)에서처럼 유면적 타인의 경우에는 나이 격차가 작아도 하오체를 쓸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단독으로 하오체가 쓰이는 경우가 적고 하오체와 해체가 함께 사용하는 예는 있는데 화자가 거의 중년 이상의 남성이고 ‘-소’보다 ‘-으오’가 많이 쓰인다(이서란, 2000:26).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하오체의 단독 사용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쓰이고 젊은 이들도 그 쓰임이 가능하며 ‘-소’와 ‘-으오’가 모두 잘 쓰이고 있다. 그리고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하오체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연변지역 조선어에서 하오체의 기능부담량이 크고 사용영역이 훨씬 넓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오체 쓰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해요체 형식이 널리 사용된다고 한다(이정복, 1998:338). 그러나 연변지역 조선어에서는 하오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해요체는 특수한 발화상

황에서만 쓰인다.

<표 7> 하오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분류	집단	한국어	기준	공통점	조선어	기준
하오체	1차 집단	(평) [-읍디다] (의) [-읍디까] (청) [-읍시다]	a 중년이 상화 자임	(평 / 의 / 명) [-으오]	(청) [-(기)오]	a[남편⇒아내, 남친⇒여친] [자식⇒부모] [시부모⇒며느리] [장인, 장모⇒사위] b[친인척사이⇔] [형제/자매(연하⇔연상)] [친밀연하⇔연상] ¹³⁾
	2차 집단	(평/의/명) [-으오] ¹²⁾	b 단독쓰 임음		(평/의/명) [-으오] [-소]	[상사-부하]화자⇒청자
	개인-개인					a[무면적 타인] 나이 격차가 많음 b[유면적 타인] 나이 격차가 적음

3.1.4. 하계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대체로 청자의 나이가 화자와 같거나 화자보다 적은 경우에 쓸 수 있다. 하계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형식에는 ‘-네/-는가/-게/-세’가 대표적이다.

(12) {1차 집단}

<장인⇒사위>

ㄱ. 향옥 아버지-사위: 술도 음식이러는데 그래 손님은 내버리고 혼자 먹는단 말인가? 우선 받아놓게! /우리 집엘 와줘서 반갑네.

12) 이윤하(2001:251)에 따르면 [-오]는 중년 이상의 화자가 청자에게 쓰는 형식이고 격식체에 속한다. 그러나 연변지역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하오체를 쓸 수 있으므로 격식체, 비격식체 제한이 없다.

13)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남편⇒아내>

ㄴ. 영화-설매(아내): 내 언제 안 해오겠다고 했는가?

<오빠⇒여동생>

ㄷ. 영화-영애(여동생): 개들도 학교에 가면 떠돌이라고 애들한테 놀려대지 않는가?

<아버지⇒아들친구>

ㄹ. 달수-정수(아들친구): 또 자네가 한 말인가?

(13) {혼잣말}

달수: 어디 사이다 파는 데라도 없는가?

(12ㄱ, ㄴ, ㄷ, ㄹ)에서 보다시피 장인 될 분이 처음 보는 ‘사위’와의 대화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빠가 여동생에게, 아버지가 아들 친구에게 하계체를 사용하였다. 연변지역에서 나타난 하계체는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허물없이 쓰는 말로서 격식성이 덜하고 청자는 반드시 성인 이상이다.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하계체 쓰임은 그 횡수가 상당히 적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어에서는 해체로 대체되고 연변 지역에서는 하오체로 대체되거나 혼잣말에서 사용된다.

<표 8> 하계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분류	집단	종결어미		기준
하계체	단순화 경향	한국어	조선어	격 식
		해체로 대체됨	하오체로 대체됨 혼잣말에서 사용됨	격식 차린 대화방식 비격식체
	1차 집단	(평)[-네] (의)[-는가/나]	장인/장모⇒사위 손윗동서⇒손아랫동서	
	2차 집단	(청)[-세] (명)[-게/세]		
혼잣말	(의)[-는가] (평)[-네]	교수⇒제자	상대 있을 수도 있음	

3.1.5. 해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어/-지’로 대표되는 해체는 일명 반말이라고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어떤 등급의 대우를 해주어야 할지 뚜렷하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 말끝을 흐리게 될 때 생겨난 용어이다. 현실적으로 해라체와 하계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두루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 주며 청자에 대한 높임의 정도 면에서 해라체와 하계체 사이에 드는 등급이다. 해체는 사용된 화자-청자 대부분은 대화가 더 진행될 경우 해라체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에서 사용된 해체는 <부모⇒자녀>, <자녀⇒부모>, <손위⇔손아래>, <친밀연하/연상>으로 {1차 집단}을 형성한다. 그리고 교사와 제자,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직장 동료로서 {2차 집단}을 형성한다. {개인-개인}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대신 혼잣말에서 해체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서란, 2000:27).

한국어에서 {1차 집단} 내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바탕을 두어,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¹⁴⁾ 부부, 연인, 친구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지만, 연변지역 조선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14) {1차 집단}

<남편⇒아내에게>

ㄱ. 학수-영애: 어디에 있으나 있겠지!

<부모⇒자녀>

ㄴ. 백화-철수(아들): 대도리는 그렇다면 대도리대로 해야지.

<손위⇒손아래에게>

ㄷ. 김씨-영애(며느리): 금년에도 곡식이 잘 되는가 보자구!

<친밀연상/연하>

ㄹ. 학수: 다시 돌아올지 아니?

14) <손아래-손위>: 난 아냐? /왜 이래?/술 좀 그만 마셔. (이서란,2000:17)

영삼: 다시 오면 또 새 걸 하나 갖추면 되지!

(15) {2차 집단}

박선생님⇒학생: 골이 텅 비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니? 안 봐두 뻔하지.

(16) {개인-개인}

ㄱ. 영애: 주인 계십니까? 주인: 누구신지...

ㄴ. 여손님: 학생이름이 뭐지?

(17) {혼жат말}

선녀: 이렇게 쓰러지면 절대 안된다. 기여서라도 집으로 가야지.

천화: 저렇게 되면 부항단지 의사는 실업을 당하는게 아닐까?

(14ㄱ)에서처럼 연변지역에서는 부부(연인) 사이에서 해체만 사용하는 예는 극히 적은데 일반적으로 아내의 [합쇼체], 남편은 [하오체]를 쓰는 예가 많다. 위에서 보다시피 종결어미 ‘-지/-르까’의 쓰임이 많고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어/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교사가 제자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단독으로 해체를 사용하지만, 조선어에서는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대우 등급과 번갈아서 쓴다(15[해체-해라체])¹⁵⁾.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1, 2차 집단}에서 해체가 단독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고 그 횟수도 많지만, 연변지역에서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두 개 등급에서 넘나들며 쓰이고 있다. {개인-개인}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주로 ‘-어’가 사용되고 조선어에서는 ‘-지’가 많이 사용된다. 혼жат말은 한국에서는 ‘-네/-는가/-나’가 자주 사용되지만, 연변지역에서는 ‘-지/르까’가 많이 사용된다.

15) 조선어에서는 교사가 전체를 상대할 때는 합쇼체를 씀.

한국어에서 해체는 <부부>, <연인>, <자녀⇒부모>, <손아래⇒손위> 사이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조선어에서는 거의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해체 기능부담량이 적다.

<표 9> 해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분류	집단	한국어		공통점	조선어		
해체	1차 집단	부부/연인 자녀⇒부모 손아래⇒손위	[-어] 가 이 임. 많 쓰	[-지] (친밀 관계에 바탕을 둠)	다른 등급 과 섞여 쓰임	주로 [-지] 가 쓰임	
	2차 집단	상사⇒부하 선배⇒후배 직장동료			교사⇒학생		전체 상대 합쇼체를 씀
	개인- 개인	[-어]			손위⇒손아래 격차 많음		[-지]
	혼잣 말	-네/-는가/-나					-지/을까

3.1.6. 해라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해라체는 청자대우법의 등급 가운데서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이 가장 낮다. 높임의 절대값이 영인 등급이라고 하지만 다른 등급과 비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춤 등급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해라체를 이루는 종결어미 형식에는 ‘-는다/-느냐/-어라/-자’가 대표적이다. 해라체가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집단내부의 상호작용 중에서 집단 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화자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청자에게 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조선어에서는 상하 격차가 큰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또는 동년배 사이에 쓰이며 청자가 어린이층일 때도 많이 쓰인다.

(18) {1차 집단}

<부모⇒자식>

ㄱ. 백화-철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구해준다면 그것도
다 좋은 일이 아니야?

<손위⇒손아래>(친밀연상/연하)

ㄴ. 전호-문철: 어찌다가 온 고향손님인데 줄만한 선물이 없구나!
자, 이거라도 받아라!

<친밀동감>

ㄷ. 영삼: 학수야, 죽은 사람 어찌겠니?

학수: 내 시내에 들어간 후 술 담배를 딱 끊었었다. 술 담배 돈
은 적게 드니?

(19) {2차 집단}

<교사⇒학생> 이선생님: 빨리 가서 부모님께 희소식을 전해라!

(20) {개인-개인}

빛받이군-춘남: 네 말해봐라! 아버지 어디 갔는지 너는 알지?

연변지역의 조선어에서 해라체의 사용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 관계의 친밀함 정도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연인 혹은 부부 관계에서 해라체의 사용은 전혀 없었다.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해라체 의문법의 종결어미 ‘-느냐/-냐’는 함경도 방언을 바탕으로 하는 연변지역 조선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본고의 자료에서는 혼잣말에서만 나타나고 그 외 집단에서는 대신 모두 ‘-니’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었다(18ㄷ). {2차 집단}에서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상사-부하>의 해라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조선어의 종결어미 ‘-니’는 한국어의 ‘-냐/느냐’에 비하여 기능부담량이 많고 {2차 집단}에서는 해라체의 기능부담량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종결어미 ‘-야’는 해체에 속하지만¹⁶⁾, 연변지역의 조선어에서

는 (187)에서 볼 수 있듯이 해라체로 쓰인다.

<표 10> 해라체만 사용되는 화자-청자 관계

분류	집단	한국어		공통점		조선어
해라체	1차 집단		[느냐] [냐]	-다 -어라 -자 -니	부모⇒자녀 손위⇒손아래 친밀 동갑	[니] [야]
	2차 집단	상사⇒부하 직장동료			교사⇒자제 선배⇒후배	
	개인-개인		손위⇒손아래 격차 많음			
	혼잣말		-다/ -냐		-니/-나/-냐 /-라	

3.2. 화자, 청자 관계 유형에 따른 청자대우법 등급 선택 유형

한국어에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거리에 의하여 청자대우법 등급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수직적 거리는 상위자와 하위자의 구분을 만드는 권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수평적 거리는 유대 및 친밀이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대는 같은 계층 또는 계급에의 소속감으로서 친근-친밀과 구별된다(Paulston, 1976). 같은 계층에의 소속감, 같은 고향, 학교, 직장에서의 소속감, 빈번한 접촉, 개인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화자-청자 관계가 속하는 사회적 관계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되고, 개개인의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화자-청자의 관계를 {1차 집단}, {2차 집단}, {개인-개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수평거리는 {개인-개인} <{2차 집단} <{1차 집단}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리고 <손위-손아래>는 수직적 거리가 존재하고 <친밀연상-연하>는 수직적 거리가 없는 관계라고 할

16) 이교수-시내: 작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서란, 2000:19)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는 {1차 집단}이므로 수평거리가 가깝고 수직거리가 아래쪽이며 친형제 간일 경우 <부모-자녀>와 비슷하면서도 수직거리가 약간 더 가까운 관계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청자대우법 등급의 선택 유형과 화자-청자 관계유형을 분석하면 청자대우법 등급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적 거리가 작용하는 방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1> 화자-청자 관계 유형에 따른 청자대우법 등급 선택 유형

화자-청자 관계 유형			청자대우법 등급 선택 유형(1)17)						
집단	상대적 지위	관계유형	A	B	C	D	E	F	
1차 집단	화자 > 청자	남편-아내		●	○	●	●		
		부모-자녀				●	●	●	
		친인척사이		●	○		●	●	
		친밀연하		●			●	●	
	화자 ≈ 청자	친밀동갑				●	●	●	
		연인	○18)	●	○		●		
	화자 < 청자	아내-남편	○	●			●		
		친밀연상	○	●			●		
친인척사이		○							
자녀-부모		○	●			●			
2차 집단	학교	화자 > 청자	교사-학생			○	●	●	●
		화자 < 청자	학생-교사	○	●				
	직장	화자 > 청자	상사-부하		●	○		●	
			선배-후배		●	○		●	
		화자 ≈ 청자	직장동료	○	●	○		●	
			후배-선배	○	●	○			
화자 < 청자	부하-상사	●	●						
	개인 개인	화자 ≥ 청자	유면 타인	●	●	●	●	●	●
화자 ≤ 청자		무면 타인	●	●	●		●	●	
혼жат말	화자-(청자)	혼жат말					●	●	

<표 11>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와 조선어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하계체D, 해체E, 해라체F에서, 수평거리가 제일 낮은 {개인-개인}에서 대

17) 합쇼체A, 해요체B, 하오체C, 하계체D, 해체E, 해라체F.

18) ●:한국어를 선택함. ○:조선어를 선택함. ◐:한국어, 조선어를 선택함.

우 등급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거리가 높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서 높은 등급인 합쇼체A, 해요체B, 하오체C의 선택에서 한국어와 조선어가 차이점을 보이는데 한국어에서는 해요체 중심으로, 연변지역에서는 합쇼체와 하오체 중심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계체의 경우 한국어와 조선어에서 화자가 모두 중년 이상이라는 제약이 있고 해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어에서는 대부분 다른 등급과 섞어 사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다.

{개인-개인}의 경우 한국어와 조선어에서 모두 단일 등급유형을 선호하는 점에서는 같다. 조선어에서는 유면타인과 무면타인의 수평적 거리와 관계없이 수직적 거리, 즉 격차가 크면 합쇼체를, 격차가 작으면 하오체를 사용하며 해요체의 예가 극히 적다. 한국어에서는 무면타인의 경우 합쇼체를, 유면타인의 경우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중년 이상의 화자의 경우 적지만 하오체를 사용한다.

연변지역에서는 수평적 거리가 가장 높은 {1차 집단}과 보통인 {2차 집단}에서 [화자 < 청자]일 때는 합쇼체를, [화자 > 청자]일 때는 하오체를 쓰고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수직적 거리와 관계없이 해요체를 사용하므로 해요체의 사용영역이 넓고 기능부담량이 크다. 조선어에서는 연인 전에는 서로 합쇼체를, 연인 사이이면 남성은 하오체로 바꾸지만, 한국어에서는 연인 전에서는 해요체를, 연인 사이이면 해체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부부 사이에 해요체 또는 해체를 사용하지만, 조선어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대우가 분명하여 하오체와 합쇼체를 사용한다. 조선어에서는 직장동료 사이에서 초면에는 합쇼체를, 좀 익숙해지면 하오체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해요체를 두루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어는 해요체, 조선어는 합쇼체와 하오체의 기능부담량이 크다.

3.3. 청자대우법의 등급 체계의 재검토

2장에서 보다시피 청자대우법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한국어 청자대우법의 체계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별하여 이원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한국어의 현실에 제대로 부합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종결어미가 높임 자질이 있고 없음에 높임과 낮춤이라는 극성 대립어로 분류하여 중간영역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실 언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손윗사람에게 쓰인다는 근거로 ‘높임’이고 손아랫사람에게 쓰인다는 근거로 ‘낮춤’이라고 구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손아랫사람이라 해도 낮선 사이에서 충분히 높여 주거나 안 높여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실 언어에 가장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청자대우법의 체계는 안 높임 등급을 기준으로 높임 등급이 대립하는 체계로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청자대우법의 등급적인 측면에서 높임 등급을 실현하는 종결어미는 그 어미구조체에 청자에 대한 높임의 요소가 관여하고 안 높임 등급을 실현하는 종결어미의 구조체에는 높임의 문법 요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높임 등급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가지는 높임 관념의 정도에 따라 아주높임, 예사높임, 조금 높임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자가 청자에 대한 높임의 대우 관념이 반영된 종결어미의 형태는 그 문장의 서술어에 결합하여 높임 등급의 청자대우법을 실현하므로 유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자대우법에서 기본이 되는 등급은 안 높임 등급 즉 평대인데 청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의 대우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 청자대우법으로서 무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유표적인 청자대우법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무표적인 청자대우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어와 조선어에서 같은 화자와 청자가 청자

대우법의 6등급에 대한 선택이 다른 점을 확인하였다. <표 11>의 단일 등급의 선택에서 한국어의 해요체(B)와 조선어의 합쇼체/하오체(A/C)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청자대우법 6개 등급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넘나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하오체(C)와 하계체(D)가 화자와 청자가 거의 중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등급이 화자-청자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화자나 청자에게 절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하오체와 하계체를 다른 등급과 구별할 수 있다. 조선어에서는 해요체(B)와 하계체(D)가 특수한 상황인데 해요체는 거의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개인-개인}에서 합쇼체와 섞여서 사용된다. 따라서 하오체(C)와 하계체(D)는 화자와 청자의 수직적 거리라는 조건, 해요체(B)와 하계체(D)는 수평적 거리와 수직적 거리라는 절대적 조건이 붙는 사회적 거리의 조건형, 즉 3차 화계로 하위 구분하려고 한다. 3차 화계는 화자-청자의 제약이 가장 많고 화자가 가장 적게 선택한 대우법 등급이다.

위에서 살핀 내용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조선어의 청자대우법의 등급 체계 기준과 청자대우법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A 청자대우법의 등급의 내적·외적요인

- ㄱ. 언어 내적요인: 종결어미의 형태
- ㄴ. 언어 외적요인: 화자-청자 사이의 수직적/수평적 거리
(힘과 거리¹⁹⁾)

B 청자대우법의 체계

19) 이정복(2002:202)에서는 경어법 사용에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을 그 특성 면에서 크게 둘로 나누면 ‘힘과 거리’라고 하였다. ‘힘’은 나이, 지위, 계급 등의 요인이고, ‘거리’는 친소 관계 요인이라고 하였다.

<표 12> 한국어 청자대우법 등급 체계

규 칙		기본문형 <←←←←→→→→> 제약문형 ²⁰⁾		
청자대우법 등급의 선택		1차 화계	2차 화계	3차 화계
유표적 실현	높임	아주높임	합쇼체A	
		예사높임	해요체B	하오체C
		조금높임		하계체D
무표적 실현	안 높임		해체E	
				해라체F

<표 13> 연변지역 조선어 청자대우법 등급 체계

규 칙		기본문형 <←←←←→→→→> 제약문형		
청자대우법 등급의 선택		1차 화계	2차 화계	3차 화계
유표적 실현	높임	아주높임	합쇼체A1	합쇼체A2 ²¹⁾
		예사높임	하오체C	해요체B
		조금높임		하계체D
무표적 실현	안 높임		해체E	
				해라체F

<표 12/13>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해요체는 1차 화계이고 제약이 작고 무표적이지만 조선어에서는 3차 화계이고 제약이 크고 유표적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하오체는 3차 화계이고 제약이 크고 유표적이지만 조선어에서는 1차 화계이고 제약이 작고 무표적이다. 그리고 한 등급의 선택에서 1차 화계와 가까울수록 기본문형에 가깝고 사용영역이 넓으며 3차 화계로 갈수록 화자-청자와 지역에 의하여 사용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약문형을 쓰게 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이론을 바탕으로 연변지역 조선어를

20) ‘제약문형’은 기본문형에 비하여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거리, 지역에 의해 더 많은 제약을 받는 유형인데 방언도 포함됨.

21) (3ㄴ, ㄷ, ㄹ)에서 보여주는 연변지역 방언에서 나타나는 청자대우법 등급임.

구체적인 대화 맥락 속에서 관찰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청자대우법 등급이 선택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한 등급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자대우법의 등급 체계를 고찰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조선어에서는 한국어보다 합쇼체가 훨씬 많이 사용되는데 {1차 집단}의 <연인(여⇒남)> 사이, <자녀⇒(시)부모> 사이, <아내⇒남편> 사이, <손자⇒조부> 사이에서 남녀 관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친인척 관계에서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합쇼체를 쓴다.

2)조선어에서 ‘-기시오’는 ‘-김시다’와 함께 어간이 일음절인 청유형에만 쓰이는데 하오체 ‘-기오’에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 청자를 존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연변지역의 독특한 언어형태이다. 그리고 합쇼체로 끝난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의 문말에 ‘예’를 붙여 독특한 확인동의성 부가의문문을 만드는데 주로 조선어 여성 발화어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3)조선어에서는 {1,2차 집단}에서 손윗사람에게는 격차가 크면 합쇼체를, 작으면 하오체를 사용하고 {개인-개인}에서는 보통 합쇼체를, 격차가 크면 하오체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집단에 관계없이 해요체를 두루 사용한다. 따라서 조선어에서는 합쇼체, 하오체의 두 등급의 기능부담량을 한국어에서는 해요체 한 등급이 담당하기 때문에 해요체의 기능부담량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4)한국어에서는 ‘-읍디다/-읍디까/-읍시다/-읍데’를 하오체에 포함시키지만 연변지역의 조선어에서는 합쇼체에 포함시킨다. 조선어에서만 나타나는 ‘-(으)ㅁ두/-읍지’, ‘-스꾸마/-스꼬마’, ‘-읍소’는 주로 사적인 자리에서 청자에게 사용되며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표준어와 차이가 있다. ‘-읍소’는 청유형과 명령형에 두루 쓰이는데 한국어의 ‘-으십시오/-으십시오’에 해당한다. ‘-읍지’는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물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데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이며 한국어의 ‘-옵니까’에 해당한다.

5)한국어에서는 단독으로 하오체가 쓰이는 경우가 적고 화자가 거의 중년이상의 남성이다. 그러나 연변지역 조선어에서는 하오체의 단독 사용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쓰인다. 그리고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하오체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변지역 조선어에서 하오체의 기능부담량이 크고 사용영역이 훨씬 넓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오체 쓰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해요체 형식이 널리 사용된다고 한다.

6)하계체에서 한국어와 조선어에서 화자가 모두 중년이상이고 {1차 집단}에서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쓰인다는 점은 같다. 그리고 하계체 쓰임은 그 횟수가 상당히 적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어에서는 해요체나 해체로 대체되고 연변지역에서는 하오체로 대체되거나 혼잣말에서 사용된다.

7)한국어에서 {1차 집단} 내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바탕을 두어,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부, 연인, 친구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지만 조선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연변지역의 조선어에서 해라체의 사용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 관계의 친밀함 정도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연인 혹은 부부 관계에서 해라체의 사용은 전혀 없었다.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해라체 의문법의 종결어미 ‘-느냐/-냐’는 함경도 방언을 바탕으로 하는 연변지역 조선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본고의 자료에서는 혼잣말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집단에서는 대신 모두 ‘-니’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조선어의 종결어미 ‘-니’는 한국어의 ‘-냐/-느냐’에 비하여 기능부담량이 많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종결어미 ‘-야’는 해체에 속하지만 연변지역의 조선어에서는 해라체에 속한다.

8)한국어와 연변지역의 조선어는 보다 낮은 등급인 하계체D, 해체E, 해라체F에서, 수평거리가 가장 낮은 {개인-개인}에서 대우 등급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거리가 높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서 높은 등급인 합쇼체A, 해요체B, 하오체C의 선택에서 한국어와 조선어가 차이점을 보이는데 한국어에서는 해요체 중심으로, 연변지역에서는 합쇼체와 하오체 중심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국어와 조선어는 청자대우법 등급이 낮을수록, 수평적 거리가 낮을수록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 {1,2차 집단}에서 한국어는 해요체와 해체를 중심으로 보다 낮게, 조선어는 합쇼체, 하오체와 해체를 중심으로 보다 높게 등급 유형이 선택된다. {개인-개인}에서 한국어와 조선어에서 모두 단일 등급유형을 선호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청자대우법의 한 등급만을 선택할 때 1차 화계와 가까울수록 기본문형에 가깝고 사용영역이 넓어지며 3차 화계로 갈수록 화자-청자와 지역에 의한 제약 문형에 가까우며 사용영역도 좁아지는 일련의 규칙을 찾을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김기중(1996). 중국 조선족과 한국 사이에서 호칭어·지칭어 사용에서의 차이, 『말·글·얼』, 요녕인민출판사. 10쪽~13쪽.
- 김남석(2006). 연변지역 조선족 극작가 리광수의 희곡에 나타난 작가 의식과 공연 기법 연구, <한국문학논집> 44호. 296쪽~300쪽.
- 김덕모(1996). 조선말 계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말·글·얼』, 요녕인민출판사. 280쪽~300쪽.
- 김재석(2000). 연변지역 조선족 극작가 리광수의 작품세계와 그 변모, <어문논총> 34호. 71쪽~73쪽.
- 김중훈(1984). 『국어 경어법 연구』, 서울:김문당.
- 김태엽(2007). 『한국어 대우법』, 서울: 역락.
- 김혜숙(1991). 『현대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태학사.
- 박경래(2003). 중국 연변 정압촌 방언의 상대경어법, <이중언어학> 23호. 47쪽~62쪽.
- 박양규(1993).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서울:문학과 지성사.
- 박청원 외(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태학사.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한신문화사.
서태룡 외 편(1998). 『문법연구와 자료, 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서울: 태학사.
성기철(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엄춘영(2006). 연변지역어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한석(2009). 『한국의 언어민속지』, 서울:교문사.
이광수(2006). 『사랑의 꽃』, 서울:한국학술정보.
이광수(2006). 『연변아가씨』, 서울:한국학술정보.
이서란(2001). 현대 상대경어법 등급 체계 연구: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세룡(1996). 우리말 존대법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08쪽~225쪽.
이윤하(2001).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서울: 역락.
이정복(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 태학사.
이정복(2002). 『국어 경어법과 사회 언어학』, 서울: 월인.
이정복(2008).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임홍빈(1990가). 어휘적 대우와 대우법 체계의 문제, 『국어학 논문집-강신향 교수 화갑기념』, 서울: 태학사.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서울: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정향란(2010). 『연변방언의 곡용과 활용』, 서울:한국학술정보.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서울: 태학사.
한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역락.

채춘옥(Chae Choon-ok)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자우편: ccy1019@hanmail.net

전화번호: 02-910-5431

투고일자: 2011. 12. 19

심사(수정)일자: 2012. 2. 13

게재결정: 2012. 2. 14